



## 닭의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坂井田節 / 기후교육대학교수

발육과 생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물은 생산비면에서나 이익 등 경영면에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한편 폐수처리라든가 바닥의 습기를 적게 하는 일, 연변대책, 위생관리 등 여러종류의 음수기가 개발되고 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음수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닭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로 세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수동적 타입이며 홈통식(桶式), 벨식(뿔형), 프로-트식 등이 있다.

두번째는 반응동식 타입이며 트리거-컵(Trigger-cups)과 같은 물그릇에 물을 채우기 위해 닭을 움직이게 하는 타입이다.

세째는 능동적 타입이며 니플급수기(Nipple drinkers)와 같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매번 자기가 움직여야 하는 타입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음수기에는 각기 특징이 있으며 즉, 평사계사에 적합한 것, 케이지 계사에 적합한 것, 물 소비가 절약되는 것, 제한급수에 응용할 수 있는 것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되어 개발된 것들이다. 음수기의 타입에 따라서는 닭의 음수량에 영향을 주어 그에 따라 산란율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산란성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염려된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통식, 벨식, 프로-트식 등 닭으로서는 수동적 타입의 음수기가 무난하며 닭은 본래 이와같은 타입의 음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또 육성기와 성계기에 있어 크게 음수시스템을 달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닭이 새로운 음수시스템에 익숙해지려면 약 7주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산란율과 생존률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다. **양희**